

한글 편지로 만나는 선인들의 삶

박부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연구교수

1. 들어가기

조선 시대의 한글 편지, 즉 언간(諺簡)은 당시의 실생활이 그대로 녹아 있어 생활사나 민속사 등의 자료가 될 수 있다(황문환 2010). ‘실생활’이 녹아 있으므로 언간에 반영되어 있는 생활사의 범위를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의생활, 식생활에서부터 자녀의 출산과 육아, 병치레와 민간요법, 노비 관리, 과거 관련 내용, 관혼상제, 관리로서의 생활, 가계 운영 관련 내용 등 실로 다양하다.

이 글에서는 여러 생활사 중 상례(喪禮)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언간 몇 편을 통해 가족을 떠나보내는 선인들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상은 창계(滄溪) 임영(林泳)의 한글 편지이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창계 임영의 한글 편지는 총 18건으로 《임창계선생묵보국자내간(林滄溪先生墨寶國字內間)》에 수록되어 있다.¹⁾ 이 18건 가운데

1) 《임창계선생묵보국자내간(林滄溪先生墨寶國字內間)》은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1994)에서 13건을 처음 소개하였고 이후 이광호·김목한(2005)이 간단한 해제와 함께 전

임영이 막내 누나인, 조형보(趙衡輔)의 처에게 보낸 편지가 15건으로 가장 많은데, 그 중 8건이 부모의 상례를 치르면서 보낸 것이다. 이 편지에는 임영이 부모의 상을 당한 후 발인에서부터 시묘살이 하는 모습까지 비교적 상세히 적고 있어 선인들이 실생활에서 행했던 상례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²⁾

2. 임영의 한글 편지를 통해 본 선인들의 상장례

창계 임영(1649~1696)은 임일유(林一儒, 1611~1684)의 둘째 부인 임천조씨(林川趙氏, 1626~1683)에게서 태어난 첫째 아들이다. 1683년 1월 12일 어머니 임천조씨가 사망하고, 그 1년 후인 1684년 1월 22일에 아버지 임일유마저 세상을 떠났다. 이로써 임영은 연이어 부모상을 치르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일련의 일들이 임영이 누이에게 보낸 편지에 드러나 있다.

1683년 1월 12일 어머니 임천조씨가 세상을 떠난 후 임영은 여러 차례, 조형보와 혼인한 막내 누나에게 장례와 관련된 일을 전하는 편지를 보냈다.³⁾

체 18건의 판독문을 수록하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5)에 원본 사진이 실려 있다. 최근 간행된 황문환 외(2013)에는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1994)과 이광호·김목한(2005)의 판독문 대교 사항과 수정 사항이 수록되어 있다.

2) 이 글에서 제시하는 한글 편지의 출전 및 판독문은 황문환 외(2013)의 내용을 따랐으나 발신 연도나, 판독문에서 필자와 견해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필자의 견해대로 수정하고 해당 편지의 각주로 관련 내용을 제시하였다.

3) 인용한 편지 원문에서 □로 제시한 것은 훼손되어 판독이 불가능한 부분을 표시한 것이다. 이하 편지에서 모두 동일하다.

……이제는 볼셔 두□□ 브질업슨 디난 일 애드디 말고 몸이나 잘
 도리(調理)하여 잇다가 겨울□□티 느려오소 발인(發靛)이 수일(數
 日)이 격(隔)하여 겨시니 절절이 못 견딘 일□산흔날 결관(結棺)하
 옧습너……삼월 녀오일 동싱 □ <창계-14, 1683년 3월 25일, 임영
 (동생) → 막내 누나>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두 달 남짓하게 지나 결관(結棺)하고 곧 발인
 (發靛)을 할 예정이었다.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었는지 4월 19일에 막
 내 누나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장사 지낸 일에 대해 자세히 적고 있다.

시에는 희가 쾌히 비최니 그는 극(極)하 다행(多幸)이레 장스(葬事)
 디난 날 날도 붉던 거시어니와 새뻬 세 너딩(雷霆)이 진동(振動)하
 니 그새 숲고 안심티 아니키를 어이 다 니를고 비 즈로 오티 종시(終
 是) 일의 해롭기 아니하니 그는 더욱 공교로운 듯하여 다행하데 디
 내는 일이 다 춤아 못홀 일이나 그 등의 낭패(狼狽)하는 므디나 업서
 송동 대스(送終大事)는 그리 미진하 일이 업스니 이는 어마님 적선
 (積善)하신 덕인가 하너 나도 실노 견디여 나디 못홀 □□터니 길희
 셔 눈물과 쯤의 늦가죽이 부뤄셔 다 버서디고 산소(山所)□□□간
 날은 밤의 오좁을 다 뿌되 원기(元氣) 각별(各別) 대패(大敗)하든 안
 니하여시니 몸숨이 질기거나 도오시는 일이 잇는가 그런 의외 업너

4) 이 편지에는 발신 연도가 적혀 있지 않다. 그러나 ‘발인이 수일이 격하여 겨시나’라는 부
 분을 통해 발신 연도를 추정할 수 있다. 임영이 아버지 임일유가 세상을 떠난 후 1684년 3월
 20일에 보낸 편지(창계 4)에는 ‘발인 장스는 무스히 디내고’라고 하였으므로 임일유의 장례
 를 3월 20일 전에 치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3월 25일에 보낸 <창계-14>의 ‘발안’은 임친
 조씨의 장례와 관련된 것이고, 이 편지는 1683년에 보낸 것이다.

……장사(葬事) 디내온 날 꿈의 분영(墳塋:무덤)이 흐르시 뵈오니
 밧 가온 쎄 밧 벋테 누어 겨시겨늘 내 늦츠로 밧을 부비슷츠니 초상
 (初喪) 적과 달라 밧이 부드러워 겨시니 그는 길흔 꿈인 듯헌데 앓가
 낮 꿈을 ㄱ 쑤엇더니 자넝 편지를 보니 아르시미 잇는가 설운 둥 일
 변 든든히……스윌 시구일 동싱(同生) 영(詠) <창계-10, 1683년 4월
 19일, 임영(동생) → 막내 누나>⁵⁾

어머니를 땅에 묻고 오는 아들의 그 비통함은 무어라 말할 수 없었
 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어머니를 보내는 데 미진함이 없기를 바라는 마
 음 또한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였는지 임영은 특히 날씨 때문에
 꽤나 노심초사했던 듯하다. 장사 지낸 날에는 달이 밝았지만 새벽에는
 천둥과 벼락이 진동해서 안심되지 않았던 마음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면서 비가 자주 오지만 일에 해롭지 않으니 다행스럽다고 하였다. 어머
 니를 땅에 묻는 일이 견디기 힘든 일이지만, 크게 낭패되는 경우가 없이
 장사를 잘 지낸 것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덕을 쌓은 덕분인 듯하다며 위
 안을 삼는다. 임영은 어머니의 장례가 큰 무리 없이 치러진 것에 안도
 했던지 장사 지낸 날은 어머니 꿈을 꾸기도 하였다. 꿈에 어머니가 밧
 에 누워 계셔서 자신의 낮으로 어머니의 밧에 비비고 문지르니 어머니
 의 밧이 초상 때와는 달리 부드러웠다면서 길한 꿈인 것 같다고 하였다.
 이렇게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임영은 시묘살이를 시작했다. 시묘살
 이는 가례(家禮)에는 없지만 조선 시대 상례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 중
 하나였다.

5) 이 편지에는 발신 연도가 적혀 있지 않다. 장사 지낸 일과 관련하여 ‘이논 어마님 적션헌
 신 덕인가 허낙’라고 적은 것으로 보아 임천조씨의 장례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편
 지는 1683년 4월 19일에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산소 가기의 오래 편지도 못 할가 하여 정신도 어슬러되 강잉
(強仍)하여 덕너……〈창계-10, 1683년 4월 19일, 임영(동생) → 막
내 누나〉

나는 이 스프허르날이야 산소의 드러오니 설은 정스를 어이 형용하
여 니를고 〈창계-3, 1683년 8월 1일, 임영(동생) → 막내 누나〉

나는 시방 □□으로 머므니 시월(十月) 초칭(初生)이면 □□□고
도라갈가 시비 인력(人力)이 하□□□□ 어궁히 비록 산소 위흔온
일□□□히 안심티 아니하……산소의 들포 이시니 아쇠온 막음의
פק □□하나 아마도 막음을 위로할 길히 □고……〈창계-6, 1683년
9월 16일, 임영(동생) → 막내 누나〉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후 보낸 편지(창계-10)에서는 산소에 가면
오랫동안 편지를 못할 것 같아서 억지로 몇 자 적는다고 하였는데 산소
에 간다는 것은 바로 시묘살이를 하러 가는 것을 말한다. 이후 8월 1일
편지(창계-03)에서는 21일에 산소에 들어온다고 하였고, 9월 16일 편
지에서는 산소에 달포를 있었다고 하였다. 즉, 어머니 산소 옆에서 시
묘살이를 하는 동안 내내 산소 옆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끔씩 여묘를
떠났던 것이다. 8월 1일 편지를 보면 임영이 여묘를 떠나 어머니의 무
덤에 놓을 석물(石物)을 직접 챙겼던 것을 알 수 있다.

……석물(石物)은 망뉘(望柱)과 계절(階節)과 상들(床-)을 다 시작
하여 흐라 하니 역식(役事) 적디 아니코 한아바님 계절도 석물이
미비(未備)하매 그도 흐라 하고 부예(夫餘)서 가져온 상들이 도티

아니흐매 예서 고티랴 하니 구월 너로 필역(畢役)을 밋디 못하니 아
직 횡기(行期) 디속(遲速)을 덩(定)티 못홀쇠……계희(癸亥, 1683)
팔월 초일일 상인(喪人) 영(泳) <창계-3, 1683년 8월 1일, 임영(동
생) → 막내 누나>

어머니의 산소에 마련할 석물(石物)은 망주(望柱)와 계절(階節),
상돌 등이다. 상돌은 부여에서 가져온 것이 있지만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서 고쳐 쓰려고 하였다. 어머니 산소에 석물을 마련하는 일도 큰일
인데 할아버지 산소의 계절(階節)까지 다시 하려고 하니 일의 규모가
더 커졌을 것이다. 임영이 편지에서 ‘구월 너로 필역(畢役)을 밋디 못
니’라고 하였으니 이런 석물을 마련하는 데 족히 한 달은 넘게 걸렸던
듯하다.

조선 후기에는 임영처럼 시묘살이를 하는 동안 여묘를 떠나는 경
우가 종종 있었다. 이문건(李文健)은 1535년 1월 5일 모친상을 당한 후
장손인 조카 휘(輝), 아들 온(燾)과 함께 노원(서울시 노원구 중계동)의
분묘 곁에서 3년 동안 시묘살이를 하면서 가끔씩 여묘를 떠나 서울에
출입하였다. 주로 건강이 악화되어 몸을 추스르거나 상 제례에 관한 일
을 처리하기 위해서였다. 함께 여묘를 지키고 있던 조카 이휘(李輝) 또
한 상 제례나 집안일 등을 이유로 여묘를 떠나 서울에 다녀갔다(김경숙
2005:121).

시묘살이를 하면서 어머니의 소상(小祥)이 지나고 얼마 안 되어
1684년 1월 22일 아버지 임일유가 세상을 떠났다. 이후 2월 15일에 보
낸 편지(창계-17)에서처럼 3월 6일에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 그런데 상
주(喪主)인 임영이 그간의 시묘살이로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던 듯하
다. 병세가 전년 선달 보름 때와 별반 다르지는 않지만 기운이 점점 빠

저서 초상을 집상(執喪)하지 못하고 곧 있을 발인도 어떻게 할지 걱정할 정도였다.

……장일(葬日)은 삼월 초륙일노 되게 하였더니 내 병은 마치 저년 시절 보름씩 즈음만은 하되 원기(元氣) 점점 못하여 가니 초상(初喪)을 바히 집상(執喪)을 못할 뿐 아니라 전두(前頭) 발인(發靨) 시(時) 엇디하여 보전(保全)하며 상의(相議)홀디 모로니 민망기 7업식
……〈창계-17, 1684년 2월 15일, 임영(동생) → 막내 누나〉

걱정했던 것과 달리 다행히 장례는 잘 치른 듯하다. 1684년 3월 20일에 보낸 편지(창계-04)에서는 막내 누나에게 발인과 장사를 무사히 지냈으며 감사(監司)가 장례와 관련된 일들을 극진히 하여서 작년 어머니 상(喪)보다 더 갖추어서 지냈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우리는 발인(發靨) 장스(葬事)는 무스(無事)히 디내고 이 보름날 룡담으로 드러왔니 범스(凡事)를 감시(監司) 극진극진(極盡極盡)이 하니 전년(前年)이에서 더욱 7좁게 디내고 광둥 토식도 저년이나 다르디 아니하니 다행하데……갑자(甲子, 1684) 삼월 념일 동싱 상인 영 〈창계-4, 1684년 3월 20일, 임영(동생) → 막내 누나〉

발인 장사를 지내는 데 감사(監司)가 모든 일을 극진히 하였다고 했는데, 이때의 상황을 아래의 편지에서 짐작할 수 있다. 아래 편지는 발신일이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모친상의 발인인지 부친상의 발인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당시 발인 때의 모습이 생생하게 적혀 있다.

우리는 춤아□□□□일절□□□□ 반혼(返魂) 되서 집의 도라오
 니 강산과 집 거□□□□ 신주(神主)만 되시고 와서 춤아 어이 눈 드
 러 보는 □□□ 설운 정스와 형상(行喪) 영장(永葬)의 대소(大小) 스
 설(辭說)이 만□□□□드려 니를고 누의님도 아니 이시니 내 믿음
 을 더욱 조곰도 의지홀 디 업서 호는 줄 일뎡 각별(各別) 싱각호는가
 호니 발인(發靚) 적 집 썩나 압강으로 나가던 일과 은진(恩津) 디날
 적 산소(山所) 드러갈 적 장스(葬事) 적 반혼(返魂)□□□ 적 집의
 도라온 경상은 초상(初喪)의셔 다른 일이 업□□상호올 적은 극진
 이 호와 감스(監司)도 습례(參禮:전라북도 완주에 있는 읍) 나와서
 기들너 도상(弔喪) 호고 티던(致奠) 호고 담군(擔-) 밧 역냥(役糧)⁶⁾
 역군(役軍) 각 관(官)의 극히 주족(周足)이 분뎡(分定) 호였고 초우
 (初虞) 직우(再虞) 제(祭)도 무안(務安) 함평(咸平)의 뎡(定) 호엿데
 다 여셔 청티 아닌 거슬 당신 싱각호여 호니 위연티 아니 호고 각 관
 슈령(守令)덜도 거의 다 디경의 와 마자 호상(護喪) 호고 길ㄴ 아닌
 슈령도 길노 나와 보느니도 만호고 담군을 빅여 명으로 가기의 보는
 사름은 웅장(雄壯)이 녀기고 비록 우리 믿음의도 □□□히 적막(寂
 寞)디 아니시니 그는 다행(多幸) 호고 군이 만호고 영니싱□□□□
 상호는 사름이 다 극진 경탁호고 조심호기에 놓호 디 느즌 디 업시
 마치 평안(平安) 호기 요동(搖動)티 아니셔 되시니 실노 극진(極盡)
 이 형상(行喪)은 호되 일싱(一生) 길 든닐 제 되셔 든니던 거시라가
 마 뒤히셔 말슴 못호 썩 굼굼굼호여 호다가 가마 브리면 차례 못
 호여 보오면 반갑던 일이 더욱 싱각호이어 썩기를 어이 니를고 장스

6) 이광호·김목한(2005)은 ‘밧연냥, 황문환 외(2013)에서는 ‘담군 밧역냥’으로 판독하였으나 이 글에서는 ‘담꾼 이외에 역량(役糧)’의 의미로 파악하여 ‘담군 밧 역냥’으로 수정하였다.

(葬事)도 백물(百物) 주족(周足) ㅎㅎ여 감스(監司)도 영미(營米) 석
 섬을 각□ 관로 분당(分定) ㅎ여 실녀 보내고 그 고을덜도 각 ㅎ 섬□
 □내고 다른 디셔도 쌀노 열ㅎ 섬이나 되고 역군(役軍)은 무당□히
 □□게 ㅎ매 인력(人力)으로 ㅎ 일은 극진이 ㅎ니……〈창계9,
 1683~1684년, 임영(남동생) → 막내 누나〉

임영이 상을 당하자 장례 때에는 감사(監司)가 상여꾼 이외에도 일
 꾼들과 그들이 먹을 양식을 각 관에 넉넉하게 나누어서 도움을 줄 수 있
 도록 하였다. 또 부의(賻儀)를 내리기도 하였는데 감사(監司)는 영미
 (營米) 석 섬을, 그 고을들도 각 한 섬씩 보내고, 다른 데서도 쌀 열한 섬
 을 부조(扶助)한 것으로 보인다. 상여(喪輿)가 나갈 때에는 감사가 삼
 레로 나와서 기다리다가 조상(弔喪)과 치전(致奠)을 하였고, 각 관의
 수령들도 거의 다 와서 상여를 맞아 그 뒤를 따랐다. 또 길가 쪽에 있지
 않던 수령도 길로 나와서 상여가 나가는 것을 보는 이가 많았다. 상여
 궂은 100여 명에 이르렀고 다들 엄숙하고 조심히 행렬을 이어 나가 상
 여를 매우 평안하게, 요동치지 않게 모시니 이와 같이 매우 극진하게 행
 상(行喪)을 했다고 하였다. 상여꾼이 백여 명에 이르렀다고 하니 그 규
 모를 가히 짐작할 만하다. 또 감사와 각 관의 수령들이 모두 나와 상여
 를 맞아 그 뒤를 따랐다고 하니 임영 집안의 세 또한 짐작할 수 있다. 발
 인에 와 보지도 못한 딸이지만 동생이 전해 주는 이야기에 다소 마음이
 놓였을 듯하다.

발인(發靱) 후에 임영은 반혼(返魂)을 모시고 집에 돌아왔다. 편지
 의 앞부분에 반혼을 모시고 집에 돌아왔다는 것과 신주(神主)만 모시
 고 왔다는 것, 행상(行喪)과 영장(永葬)에 대한 크고 작은 말들이 많다
 는 것, 그리고 발인 때 집을 떠나 ‘압강’으로 나가던 일과 은진을 지날

때, 산소 들어갈 때, 장사(葬事) 때, 반혼 모시고 올 때 등을 언급하고 있는 것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반혼(返魂)을 행한 후 임영은 다시 시묘살이를 시작하였다.

……도통(道冲, 임영의 아우인 임정(林淨)의 자(字))이 불서 산소의 둔너와시매 나는 형님하고 오늘 길 나 산소로 가니 그믐 전으로 도라올가 시비……〈창계-5, 1685년 9월 6일, 임영(동생) → 막내 누나)

임영은 1685년 9월 6일에 보낸 편지(창계-5)에서 형님과 함께 오늘 길을 나서 산소로 가 그믐 전에 돌아온다고 하였으니 산소에는 약 20일 가량 머문다는 것이다. 앞서 이미 동생 임정(林淨)이 산소에 다녀갔다. 그 시기가 임영이 아버지의 상을 당한 지 1년 반이 지난 후이다. 형제들이 함께 시묘살이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시묘살이는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효 사상에서 비롯된 관습으로, 효를 최고로 여기는 조선조의 국가 이념과 맞아떨어져(한국고문서학회 2002) 당시에는 이 풍속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주자가례》에는 부모의 장사(葬事) 후 곧바로 반혼과 우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반혼(返魂)은 장사를 지낸 후 혼백을 다시 집으로 모시고 오는 것이므로 시묘살이를 하면 혼백을 집으로 모셔 오지 않고 묘소 옆에 지은 여막에 그대로 두어야 한다. 그래서 조선 시대 예학자들은 《주자가례》와 시묘살이라는 풍속 사이에서 어느 것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늘 논쟁을 벌여 왔고 집마다 그 예가 다 조금씩 달랐다. 그 가운데 이이(李珣)는 《격몽요결(擊蒙要訣)》에서 부모상 중에 반혼을 하는 것이 맞는데 반혼을 한 이후에 부족함이 생길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면 시

묘살이를 하라고 현실을 고려한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한국고문서학회 2002:53). 임영은 발인(發靛) 후 안장(安葬)을 마친 시점에 반환(返魂)을 행하였고 그 이후 시묘살이를 하였으니 이이(李珥)가 제시한 절충안과 같은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임영은 막내 누나에게 어머니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초상을 치르고 장사 지낸 일뿐 아니라 시묘살이하는 동안에도 끊이지 않고 소식을 전하였다. 임영이 막내 누나에게 보내는 편지에 마음속 말을 하기에는 누이만한 사람이 없다고 표현한 것처럼 막내 누나와 마음이 잘 통하고 가까웠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마도 누이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와 볼 수 없었기 때문인 듯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1683년에는 막내 누나의 몸이 좋지 않았던지 임영은 1683년 3월 25일과 4월 19일에 보낸 두 번의 편지에서 모두 몸조리를 잘하고 있다가 겨울에나 오라고 당부하였다. 겨울이라면 어머니가 1월 12일에 돌아가셨으니 그 즈음일 것인데, <창계-3>을 보면 막내 누나는 어머니의 연제사(練祭祀)에는 오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동생(同生)이 만하나 안말하기 누의과 꺾디 아니하고……이제는 불셔 두□□ 브질업슨 디난 일 애드디 말고 몸이나 잘 도리(調理) 하여 잇다가 겨울□릭 느려오소……삼월 녀오일 동생□ <창계-14, 1683년 3월 25일, 임영(동생) → 막내 누나>

……누의님은 병이 댜이 든가 시브니 브딤 므음을 진명하여 수이 성하여 낫다가 겨울노나 느려와 든녀가소……<창계-10, 1683년 4월 19일, 임영(동생) → 막내 누나>

박피셔는 사람이 즈조 든니 꺾 든든히 누의님은 년제(練祭) 미쳐 누
 려오려거니와 그재 마즘 더브러 든니리나 이실가 아디 못히 허혀
 험과 달나 만나기 쉽디 아닐가 녀녀(念慮) 허너……계히 팔월 초일
 일 동싱 상인 영 <창계-3, 1683년 8월 1일, 임영(동생) → 막내 누나>

그런데 막내 누나가 친정에 상사(喪事)가 났는데도 다녀가지 못한
 것이 어머니의 상을 치를 때만이 아니다. 1년 뒤 아버지 임일유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도 임영의 누이들은 친정아버지의 상례에 다녀가지 못
 했다.

……시절이나 편하고 농담곳 이시면 이제는 내게 복매(卜馬) 이
 시니 누의님 누려오게 허미 어렵디 아닐 거시니 ㄹ을노나 와셔 든너
 가과더 허너 대쇼상(大小祥)의 오랴 흥면 □□□려니와 무시(無時)
 라도 누려와 올코 흥대나 든든홀 거시니 그리 싱각고 잇소 박피 누
 의님은 자너을 못내 불워허여시니 더욱 불상허……<창계-17, 1684
 년 2월 15일,⁷⁾ 임영(동생) → 막내 누나>

……초상(初喪)부터 흥번 제스(祭祀)의 참예(參與)티 못허여시니

7) 이광호·김목한(2005)은 1683~1686년 사이의 것으로 추정하 바 있다. 그런데 편지의 내
 용 중에 ‘장일은 삼월 초륙일노 되게 허엿나’라는 부분이 있어 이것이 부친 임일유의 장례를
 치르기 전의 편지임을 알 수 있다. 1684년 3월 20일에 보낸 <창계-4> 편지에서 발인과 장사
 를 무사히 지냈다고 했고, 1683년 발신일을 적은 부분의 판독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 1683
 년 3월 25일 보낸 <창계-14> 편지에서는 발인이 곧 다다른다고 하였다. 따라서 <창계-17>
 의 발신년은 1684년으로 추정된다. 발신월은 이광호·김목한(2005)에서는 ‘이월’로 파악하
 였는데 겹쳐 쓴 글씨가 ‘사’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장일은 삼월 초륙일노 되게 허엿나’
 를 고려할 때 삼월 이전에 쓴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광호·김목한(2005)을 따라 ‘아’로 판
 독하였다.

오랴 흐느 거시 인정(人情) 천리(天理)에 응당(應當)흐 일이니 엇던
그리 바히 못 가리라 막막이 말오실고 하 어려워 말고 종용이 슬와
서 덩흐 허락 받즌은 후 즉시 기별호소……〈창계5, 1685년9월6일,
임영(동생) → 막내 누나〉

〈창계-17〉을 보면 임영의 막내 누나는 부친상을 당하고 한 달이 가
까워 오도록 빈소를 찾지 못했다. 임영은 자신에게 복마(卜馬)가 있어
누이를 내려오게 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니 누이가 가을에라도 다녀갔
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막내 누나는 대소상(大小祥)에나 오려고 하였던
것 같다. 한편 ‘박뵈’ 누이는 막내 누나가 이렇게 대소상에라도 오려고
한다는 것도 부러워했다는 것으로 보아 그나마도 오지 못할 상황이었
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막내 누나는 결국 아버지의 소상(小祥)에도
오지 못했다. 〈창계-5〉를 보면 막내 누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초상
때부터 1년 반이 넘도록 한 번도 제사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임
영은 와야 하는 것이 인정(人情)과 천리(天理)에 응당한 일인데 어떻
게 그렇게 못 오겠다고 하고 마느냐고 섭섭함을 드러내었다. 그러면서
도 막내 누나 시댁 쪽의 상황 때문에 오지 못한다고 생각했던지 말씀을
잘 드려서 허락을 받은 후에 기별하라고 하였다.

3. 나가기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임영의 편지를 통해 17세기에 실
제로 행해졌던 상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어머니 임천조씨(林川
趙氏)가 사망하고서는 80여 일 만에 장례를 치렀지만, 아버지 임일유

의 상(喪)을 당했을 때에는 40여 일 만에 장례를 치렀다. 17세기 상례에서 논쟁이 되어 왔던 반혼(返魂)의 시기와 시묘살이에서는 절충안을 택해 반혼을 행한 후 시묘살이를 하였고, 시묘살이를 하는 동안에는 여묘를 떠나 상 제례와 관련된 일을 살피기도 하였다. 산소에 올라가면 보름이나 20여 일 정도 머물렀다. 이렇게 상례에서 주체적인 입장에 있었던 임영과 달리 그의 누이들은 친정 부모의 상사(喪事)에 와 보지도 못했다. 이에 대한 안타까움과 섭섭함이 편지에 그대로 녹아 있다. 이처럼 17세기에 실제로 행해졌던 상례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임영의 한글 편지는 조선 시대 상례의 모습을 연구하는 데에도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국사편찬위원회 편(2005), 《상장례, 삶과 죽음의 방정식》, 두산동아.
- 김경숙(2002), 16세기 사대부가의 상제례와 여묘생활-이문건의 목재일기를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제97집, 국사편찬위원회.
- 김일근(1986/1991), 《삼정판 인간의 연구》, 건국대학교 출판부.
- 류용환(2005), 우암 송시열의 상장례에 관한 연구: 〈초산일기〉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문희순(2011), 한글편지에 반영된 옛 대전의 생활문화 I: 송준길·송규렴가 편지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70, 어문연구학회, 129~157.
- 문희순(2012), 동춘당 송준길가 소장 한글편지에 반영된 생활문화, 《인문학연구》 89권,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33~62.
- 박부자(2008), 송준길 후손가의 언간첩 《선세연독》에 대한 고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7,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157~200.
- 백두현(2005), 언간을 통해서 보는 선비문화: 조선시대 한글 편지에 나타난 제례와 상례, 《선비문화》 8, 남명학연구원, 67~73.
- 백두현(2010), 《한글편지로 본 조선시대 선비의 삶》, 역락.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1994), 《창계집》,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송재용(1996), 《미암일기》 연구,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송재용(2010), 《목재일기》와 《미암일기》를 통해 본 16세기의 관, 혼, 상, 제례, 《한문학논집》 30, 근역한문학회, 303~320.
- 유영옥(2005), 학봉 김성일의 부친상 행례 의절, 《동양한문학연구》 21, 동양한문학회(구 부산한문학회), 159~192.
- 이광호김복환(2005), 《조선 후기 한글 간찰(언간)의 역주 연구 3》, 태학사.
- 이광호·신의철·박부자(2009), 《조선 후기 한글 간찰(언간)의 역주 연구 4-은진 송씨 송준길 가문 한글 간찰》, 태학사.
- 이광호·신의철·박부자(2009), 《조선 후기 한글 간찰(언간)의 역주 연구 5-은진 송씨 송규렴 가문 한글 간찰》, 태학사.
- 정승모(2003), 성재 신응순의 《내상기》를 통해 본 17세기 초 상장례 풍속, 《장

- 서각》 10, 한국학중앙연구원, 53~80.
- 조항범(1998), 《주해 순천김씨묘출토간찰》, 태학사.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2000), 《조선시대 관혼상제 2-상례편(1)》.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2000), 《조선시대 관혼상제 3-상례편(2)》.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2000), 《조선시대 관혼상제 4-상례편(3)》.
-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5), 《조선 후기 한글 간찰(언간) 영인본 1》, 태학사.
- 황문환(2002), 조선 시대 언간과 국어 생활, 《새국어생활》 제12권 2호, 국립국어연구원, 133~145.
- 황문환(2010), 조선시대 언간 자료의 현황과 특성, 《국어사연구》 10, 국어사학회, 73~131.
- 황문환 임치균 전경목 조정아 황은영(2013), 《조선시대 한글편지 판독자료집》, 역락.